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Planning among Non-Christian and Christian Participants in Life Career Design

김진 (Jin Kim)**

박에스더 (Esther Park)(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In the reality of modern individuals exposed to confusion and dilemmas regarding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areer planners who provide specialized life-career design services, issu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rapid digitalization and the emergence of AI following the pandemic. Given that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areer planners inevitably affects life-career desig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henomena of what identity non-Christian and Christian career planners possess, what transformational experiences they undergo, and what essential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they experience while participating in life-career design. This study seeks to elucidat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dentity formation by exploring the significance demonstrated in the life-career design experiences of non-Christian and Christian career planners. Specifically, it examines the meaning of transformational learning experiences manifested through life-career design by five non-Christian career planners and five Christian career plann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suitable for identifying the essence and meaning of life-career design phenomena, was adopted.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interviews and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the similarities among the study subjects included a transition from personal identity to professional identity in life-career design, possessing a vocational mission identity, and expanding career planning expertise. However, Christian career planners differed from

* 2024년 5월 7일 접수, 5월 27일 게재확정.

** 백석예술대학교(Baekseok University of Arts) 외래교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9길 23, kjbaul@naver.com

*** 한국진로적성센터(Korea Career Aptitude Center) 대표,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66 트윈시티남산 6층, esther-park@naver.com

non-Christian career planners in that they categorized complex life-career problem-solving within life-career design, experienced a transition from professional identity to spiritual identity with a 'calling motivation and role provision' in career planning, and underwent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ntegrated transformational experiences with God. This study presented the fact that life-career design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solving not only career,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issues but also spiritual problems. The initial clinical study results suggest that when general pedagogy and Christian worldview faith are integrated with life-career design based on God's human creation principle, biblical career design theory, and creation principle-based career aptitude assessment tools, it can provide solutions to educational, psychological, and spiritual problems through vertical and horizontal integration.

Key words: life career planning,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non-Christian career counselor, Christian career counselor, Giorgi phenomenological approach

I. 서론

팬데믹 이후 AI의 등장과 디지털의 확장으로 직업세계는 전례없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의 발전은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가져왔으며, 첨단기술은 일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다양화시키며 ‘기술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이라는 새로운 고용시장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개인 삶의 변수들의 증대는 ‘생애진로설계’라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이유우, 2022). 이 사실은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에게 모두 인적자원과 경력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는데, 변화에 대한 응전으로서 개인의 생애는 지속적 적응의 과정이라는 생애전환 측면의 생애진로설계 개념을 부각하고 있는 시점이다(노규성·이주연, 2016 ; 이광석, 2021).

개인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고정된 일터를 떠나 유랑하며 일하는 유목민과 같은 ‘노동노마드’의 삶을 조우함으로써 생애진로설계의 중요성이 비단 청소년만이 아닌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비기독교계와 기독교계 모두 생애진로설계를 진행하는 진로설계사¹와 같은 전문 상담 영역에 대한 전문가 필요성과 수요는 2015년 이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최혜윤 외, 2019). 높아지는 이직률과 함께 생애진로설계를 받고자 하는 교육 수요의 욕구는 ‘진로의 전환’이라는 진로현상과 구체적인 진로적성검사를 통한 생애진로설계를 제시하는 진로설계사들의 공급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김신희·양은주, 2019). 기독교적 세계관을 위한 상담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피설계자의 진로동기를 촉진하는 ‘촉진자’, ‘멘토’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정연·이복희 2022).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성인학습자 자신이 가진 세계관과 직업 정체성은 직업이 갖고 있는 자신의 특성, 흥미, 가치관, 능력에 대한 명확한 상징성의 체감과 변화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생애진로설계는 단선적 직업수행과 학습경험으로의 진입을 넘어 생애사건의 심층적 역동을 유발하는 일종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생애전환적 사건들은 곧 직업과 관련한 고유한 정체성 형성의 전환학습경험을 의미한다는 가능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1) 개인의 성향과 적성, 전(全)생애를 통해 선택해야 할 생애진로정보를 찾아주고, 설계된 진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직업적, 심리적, 교육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선도하는 진로교육전문가로서, 민간자격 제 2018-004359호에 해당하며,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 응시자격 및 취득하는 일반 진로설계사 자격과 기독교인 대상으로 응시자격 및 취득할 수 있는 성경적 진로설계사 자격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자격시행기관은 한국진로설계사협회이며 자문기관은 한국진로설계학회이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한국진로적성센터, 2024, 한국진로설계사협회, 2024).

최근 다수 배출되어 온 진로관련 상담가들이 일반 진로설계와 기독교 측면의 진로설계가 어떻게 다른지 실제적으로 자신의 진로설계 정체성을 구분하지 못한 때, 진로전문성 역량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겪는 정체성 딜레마를 극복하도록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달리 어떠한 기독교적이며 성경적 진로설계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이 필수적인 실태이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개인들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준거들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신의 직업의식과 직업정체성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에 대한 반응여부도 서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자기이해에 기반한 진로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의 확립은 생애사적 진로이벤트를 수행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자아정체감과도 연결되는 생애 준거들이라 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종교 여부에 따라 진로설계시 직업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최성미, 2019).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향, 역량, 신념과 같은 가치관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종합적으로 연합된 일련의 정체성 형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진·이희수, 2022).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종교적 신념 및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의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는 진로설계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인식과 신념, 세계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에게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를 대상으로 한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에 상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미령, 2020 ; 박진희, 2013 ; 채현순·장유진, 2016).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입교’라는 생애사적 진로전환사건을 겪었으며, 신앙적 신념체계가 내재화하는 구성주의 발달의 전환학습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직업의 일자리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직업전문인으로서 인식함에 더 나아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신의 직업 전문성 및 일자리 인식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자신을 향한 차별적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일을 맡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이해하는 피진로설계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원리²⁾에 따라 자신만의 고유한 성향과 적성, 역량을 갖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피진로설계자들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는 전문적 행위를 생애진로설계라고 이해한다(Lloyd-Jones, 1965). 이러한 기독교 진로설계의 출발점은 기독교 기반의 상담의 필요성을 주창한 제이 아담스(J. Adams)와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 학자들에 의해 들어왔다.

2) 구약성경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편 139: 13).”의 말씀을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인 성경적 진로설계의 근거로 밝히고자 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기이해, 직업 전문성을 통한 전문가적 조인의 제공이라는 직업 정체성 측면에서 더 나아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 지점에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경험하는 정체성 경험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와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하는 연구의 동기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정체성 상호작용과 통합적 동인으로써 작용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사전에 인지한 직업정체성 형성 경험이 생애진로설계에 임하는 진로설계자 자신의 정체성에도 유의미한 경험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자신과 피설계자와의 관계들을 어떻게 형성하면서, 어떠한 경험의 전환이 서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경험하는 학습경험이 어떠한 전환적 경험과 연결되는지를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김윤숙, 2011 ; 박진희, 2013 ; 이미정,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경험을 하며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종교정체성 유무에 따라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이 서로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색할 때, 진로설계사라는 공통된 배경을 공유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간의 종교 차이에 따른 정체성 경험의 형성과 의미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서의 경험은 서로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고 다른가?

연구문제 2.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는 서로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생애진로설계

현대사회는 전 산업영역과 종교, 교육영역에 첨단 정보기술과 AI기술이 접목된 디지털사회이다. 개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도화되고 급격화한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생애와 직업세계

를 격변시키기에 충분한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로설계사는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이해를 통해 자아를 관리해야 한다는 생애발달과제는 전생애적 측면의 진로과업으로써 당연히 추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오인탁, 2017). 진로설계사가 당면할 수 밖에 없는 진로과업은 삶과 일을 전환시킬 수 있는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과 이를 제공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진로설계 전문성 발달 형성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생애진로설계는 한 개인이 전 생애사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진로 사건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진로의사를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과정이다. 생애진로설계를 주도하는 진로설계사는 개인이 자신의 성향, 적성, 역량의 특성에 최적합한 생애진로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피진로설계자의 생애진로정체성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이다(박에스터·김진, 2021). 진로설계사는 성향과 역량에 맞는 직업제안을 통해 전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기에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피진로설계자의 생애진로 방향을 설정할 때 선도적 역할을 한다.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피진로설계자가 타고난 성향에 맞는 직업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구적 역할을 함으로써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효과적인 진로설정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는 전문가로서 생애동력의 역할을 실행하게 된다(채현순·장유진, 2016).

이미정(2014)에 의하면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발달은 개인적 직업정체성 발달과 전문적 직업정체성 발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거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설계사 개인의 직업정체성 발달은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자기 생애발달과제를 인식하고 자기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진로설계사의 전문적 직업정체성 발달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경험을 인식하여 자존감과 전문적 기능의 유능성이 발달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유사하게 생애진로설계에서 피진로설계자를 돕는다는 전문가적 역할에 진정성과 기능성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고 경험하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지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탐구문제를 제기한다.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전문적 진로설계서비스를 제공하며 피진로설계자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피진로설계자의 직업과 일을 찾아주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다르게 형성하고 발달해가는지에 대한 일부 연구를 탐구할 필요가 대두된다(이은미, 2019).

2. 전환학습경험

학습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호교환적 관계를 통해 일어난다. 성인들의 학습경험은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을 계발하는 양상을 나타낸다(김향식, 2010 ; 엄미란·최

은수, 2013 ; 정금희, 2018).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절벽에 마주한 피설계자들을 맞아 필연적으로 전환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서 경험하는 학습의 특성은 필연적으로 전환학습과 연관될 수 밖에 없다. 성인학습 분야에서 대표적인 학습이론인 전환학습이론의 창시자 Mezirow는 전 생애사 속에서 겪어가는 학습경험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이 전환학습경험이라고 보았다(Mezirow, 2000).

Mezirow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동기로서 생애혼돈의 ‘혼란스러운 딜레마’와 같은 성인의 생애를 격변시키는 생애진로이벤트를 전제하였다. 기존의 사고체계로 수용하기 어려운 갈등 상황마저도 성인학습자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해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Mezirow, 1991).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디지털화한 AI시대는 역동하는 모순 없이도 충분히 생애를 조망하고 통찰하는 통합적 관점의 생애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축적된 개인의 생애사적 경험에 대한 전환적 성찰을 통해 의미있는 진화를 일으킨다는 새로운 전환학습의 개념이 기존 전환학습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되었다(김지현 외, 2013).

Mezirow(2000)가 성인의 학습경험에서 생애 관점을 전환시키는 동기로 갈등상황에 주목하였다면, Kegan(1994)은 개인과 그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경험, 통찰, 의미부여의 활동 등 전인격적인 변화를 ‘전환’이라고 본 사실에서 차이가 있다. 궁극적으로 전환학습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비판적 성찰’과 ‘이성적 담론’을 통한 개인의 생애에 대한 관점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Merriam, 2000).

이러한 비기독교인의 전환적 관점과 달리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의 전환학습은 통전적인 의미 구성으로의 관점 전환으로서, 삶과 생애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학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지향하는 단계로 바뀌는 영육 간의 전환을 뜻한다. 전환학습 측면에서 진로설계사는 자신이 마주하는 생애사건들 속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의 수단이기 보다 수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들로의 전환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된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신앙정체성이 직업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독교인은 신앙 형성 과정에서 비기독교인이 자신과 사회를 통한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달리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창조되었다는 전환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기독교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이 아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김희영, 2018). 이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화’와도 유사맥락을 보이기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시 전환적 학습을 경험하는 탐구의 지점이라 할 수 있다(계진 외, 2022 ; 김진·이희수, 2022 ; 박경호, 2003).

3. 전문적 정체성

에릭슨(Erikson, 1968)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자아 정체성을 정체성(Identity)로 인식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보는 자아가 일관된 형태를 지닌다고 보았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형성의 생애 과정에서 고정적이며 변하지 않은 자아의 상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신이 자부심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직업적 중요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직업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유흥준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정체성은 전문적 직업인으로 자신이 인식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전문지식에 대한 자기검증을 완료했느냐는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이를 개인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내재적 경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인식과 함께 대외적으로 다른 직업과 구별되는 특성에 비추어 ‘전문적 정체성’이라 명명한다. ‘전문적 정체성’을 가지면 고유한 직업의 명칭개념과 사회적 상호맥락에서 특별한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전문적 정체성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개인의 정체성이 전문적 정체성의 역할과 기능으로 전환되어지는 생애직업정체성으로 발달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을 경험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종합하여 정의하자면, 진로설계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피진로설계사의 생애문제와 심리, 관계적 문제를 전문적 기능과 자격, 성품, 영성을 통해 해결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개인의 좌절을 극복한 신앙 정체성 발달을 경험했다는 연구 사실이 기독교 신앙과 일반 진로설계에서 어떠한 전문적 정체성에 영향을 경험하게 하는 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김미경, 2005).

III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진로설계 경험을 중시하며, 그 경험의 의미가 갖는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적합하

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본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개인의 생애 기술, 이론의 개발, 사례분석이 아닌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무엇을 경험하고 어떠한 전환적 학습을 본질적으로 나타내었는가를 밝히고 그 경험의 의미를 미시적으로 깊이 분석하고자 하는데 적절하였기 때문이다(고은숙, 2019).

여타 다른 현상학의 분석방법들을 비교하여 살펴본 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종교적 입장과 상황에 따라 각 연구참여자들이 어떤 개별적 학습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화하여 일관되게 분석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종교적 배경에 따른 전환학습경험 현상은 연구자의 선이해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남인(2004)의 연구는 연구자의 판단을 최대한 보류한 상태에서 현상 자체를 들여다 볼 때, 전환학습경험 연구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적 관점에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관련 사실을 기록화하고 현상학 연구를 수행한 교육학 박사 2인에게 현상학 연구의 설계와 자료를 검토 받은 뒤, 판단 보류하여 연구진술을 도출하고 연구범주를 조직화하여 연구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유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종교적 배경과 세계관에 따른 전환학습경험이 직업정체성과 연구맥락적 측면에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남을 예측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사유로부터 연구의 논리적 통찰을 진행하기에 타당하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Giorgi, 1985 ; 박예진, 2016).

2.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해서 어떠한 직업정체성을 경험하고, 종교 배경에 따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는 전환학습경험이 각각 어떠한지를 탐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를 타당하게 실행하려면 적합한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을 풀어내어 현상학적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을 적합하게 선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상학적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자면 연구참여자 모두가 연구에 실제 참여해야 한다는 Creswell(2015)의 연구의 절차를 따라 연구참여자 선별 선택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에 대해

심층적이고 풍부한 연구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 진로설계사들을 연구 취지에 맞도록 합목적적으로 채택하는 유의 표집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 연구군에서 추출하는 집중 표집을 사용하여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 현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진술을 본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비추어 현상학적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최종 표집된 참여연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한국진로설계사 협회의 진로설계사 자격(진로설계사, 성경적 진로설계사)을 공식적으로 취득 보유 및 유지하고 있는 자
- 둘째,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의 현상을 충분히 경험한 생애진로설계 활동의 기준인 매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셋째, 기독교 세례와 세례교육을 받아 세례증서를 갖고 있으며, 출석교회 소속증명서를 제출한 자
- 넷째, 진로설계사 본인이 구두로 기독교인임을 인정한 자
- 다섯째, 진로설계사 본인이 구두로 비기독교인임을 인정한 자
- 여섯째, 진술의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피설계자로부터 선입견 및 편견 등 부정반응이 없었던 자
- 일곱째, 연구자와 개인적 관계 및 접촉이 최소화된 자
- 여덟째, 본 연구에 심층인터뷰에 응하고 자료 사용을 허락한 자

이와 같이 생애진로설계에서 형성된 감정, 태도, 정서, 관계 등 ‘경험 자체’를 사실 그대로 설명할 때, 현상학의 연구목적이 충족되기에 연구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였다.

(2) 연구참여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표집된 연구참여자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다섯 명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다섯 명이다.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 전, 심리적 공감대를 가지기 위한 사전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연구분위기를 편안하게 형성한 후 사전연구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 대상의 수는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국내에서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 시에는 연구참여자의 현상적인 본질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연구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연구 대상의 수를 3명에서 10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반영하였다(권혜진·김지현, 2021).

본 연구에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으로 목적 표집하여 최종 연구참여자로 결정하였다. 연구목적에 맞추어 피설계자에 대한 생애진로설계 경험의 현상적 의미

를 본질적 면담으로 심층적으로 표현하며 생애진로설계 현상을 충분히 경험한 연구대상을 주의 깊게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 개인 센터와 교회, 교회 부설기관, 한국진로설계사협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의 생동감있는 질적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생애진로설계 임상을 정기적으로 경험하고 매월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현직 진로설계사들 중 평균 27개월에서 31개월 간 활동하며, 1개월 평균 20~25회 내외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는 진로설계사를 최종 연구참여자로 삼았다.

다음 <표 1>은 연구참여자들의 특성이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 (세)	최종학력	교육경력 (년)	진로 설계사 경력 (개월)	종교구분	직분	생애진로설계 참여 횟수(개월당)	생애진로 설계선입견 사례여부
A	42세	대졸	14년	32개월	기독교인	성도	26회	없음
B	46세	박사수료	21년	22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18회	없음
C	54세	석사졸업	26년	34개월	기독교인	사모	32회	없음
D	56세	대졸	29년	29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24회	없음
E	35세	박사재학	8년	20개월	기독교인	성도	19회	없음
F	52세	대졸	25년	35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22회	없음
G	46세	석사재학	18년	33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41회	없음
H	47세	석사졸업	19년	28개월	기독교인	목사	13회	없음
I	44세	대졸	16년	36개월	기독교인	목사	23회	없음
J	48세	석사졸업	20년	35개월	비기독교인	해당없음	12회	없음

연구참여자 선정의 기준과 과정, 최종 채택은 현상학을 연구한 교육학 교수에게 연구참여자 선정의 타당성을 연구 초기부터 검토 받아 현상학 연구의 연구참여 설계의 주관적 오류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 대상의 자료수집방법으로 면담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시차를 두어 실시하고 전사함으로써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의 전환학습경험 현상이 연구자의 전이해로 간주되면서 현상만이 온전히 도드라지게 객관화 될 수 있도록 유의하였다(유혜령, 2015).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에게는 연구취지와 연구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사항, 연구의 중도중지 권한, 개인정보의 보장, 연구종료 후 연구자료 폐기, 종교적 개입이 없음을 자세히 공지하고 연구 동의를 수락한 뒤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을 실행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들이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에 대해 다양한 연구정보가 진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작성하였다. 질문내용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에게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주요 면담 질문은 ‘당신은 진로설계사라는 직업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당신은 피설계자의 생애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향하십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생애진로설계를 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무엇이 바뀌며 무엇을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이었다.

면담 후 녹취하였고 녹취한 자료를 현상학의 연구 정신에 입각하여 연구자의 주관에 최대한 개입시키지 않고 원자료의 자료 현상 그대로 수용하는 자세로 3~4번 반복 청취하며 기록하고 녹취록을 재확인하며 면담시 실제적 느낌을 떠올리며 현상의 의미를 검토하며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에게도 녹취자료를 송출하여 자신의 면담구술과 다른 내용을 사전 검토받았다. 면담을 위한 질문항목들은 생애진로설계 이해와 자세, 생애진로설계 과정 중 전환경험, 진로설계사 역할 인식, 진로설계사 직업관, 생애진로설계시 피설계자 및 연구자 변화경험, 생애진로설계 시 문제해결경험, 생애진로설계 자가피드백 연구질문들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현상학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참여자 면담 정보를 제공해 설계된 질문지는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평생교육 전공 교육학박사 2인의 검토와 자문을 구하여 연구자의 현상학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질문과 면담의 오류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였다.

4. 자료 분석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자료를 통해서 의미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사전동의와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자료를 연구 후 동의 하에 폐기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지켰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의 면담자료들을 구조적으로 밝히기 위해 연구참여자인 진로설계사들의 의미경험들을 조직적인 질문과 포괄적인 질문을 혼합하여 상세하고 풍부

한 연구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반복적으로 구술하는 문장, 어휘를 조사하여 기호와 표시로 1차 분류, 2차 분류, 3차 분류의 순으로 개별 코드화 시키고 특정 자료들 체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자료분석 과정에서 기독교인이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 예수님, 신앙, 사명, 소명 등의 기독교 용어와 문장, 비기독교인의 용어와 문장 사용을 구분하여 표기하였고, 서로 유사한 용어를 기록하였다. 연구자의 종교적 배경과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두 연구대상 그룹의 연구맥락을 상호 비교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연계하여 묶고, 차별되는 내용은 별도로 분류하고 기호치기를 하면서 두 연구대상의 공통된 학습경험과 구분된 학습경험, 혼합된 학습경험을 분석해 나아갔다. 연구주제와 관련된 전자자료를 밀줄과 기호로 적시하며 연구주제를 연구참여자의 전자자료에서 찾는 연구자료의 실증 분석을 추구하였다.

현상학적 자료분석의 중요한 지점은 면담 전자자료에 담긴 현장성과 실증성이다. 이를 위해 면담 내용만이 아닌 비언어적 메시지, 음성반응, 느낌 등에 주의하며, Giorgi의 현상학 자료 분석의 지침에 따라 면담자료를 객관적 사실로 분리하고자 추출하였다. Giorgi가 주창한 현상학적 재현된 연구의 자세인 별도로 객관화 지향하기의 자세를 지향하여 연구현상의 본질적 특성에 개입하지 않고자 주의하였다(Giorgi, 1985). 연구참여자 중심의 진로설계사 정체성 형성의 경험이 사실대로 드러나도록 비구조적 질문과 반구조적 질문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여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구분하지 않도록 연구 대상의 범위와 자료의 심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과 연구참여자의 정보가 서로 혼합되는 비현상학적 연구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연구자의 생각을 메모하여 객관화시킴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제공한 연구정보와 분리하도록 노력하였다.

Giorgi(1985)의 4단계 연구분석 절차를 기준으로 하여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의 심층면담을 주 2~3회로 약 2시간씩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의 장소는 연구참여자의 활발한 연구자료 채집을 위해 피진로설계사들을 진로설계한 진로설계사들의 당일 현장에서 바로 실시하였다. 1단계는 전체 녹취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청취한 뒤, 녹취 전자자료를 반복해서 읽는다. 2단계는 연구주제의 학습경험에 자료분석 목표를 정렬하여 밀줄과 기호로 표시하며 들어가며 코딩기호를 기록한다. 이런 방식으로 채증되어 기록된 의미진술은 연구결과, 총 106개의 연구산출물로 분석되었다. 3단계는 채증된 의미진술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개념인 학문의 개념용어로 의미를 치환하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상상과 개입에 의해 의미진술의 본질을 담으면서도 학문적 개념용어로 변환하는 용어 치환의 기술이 연구분석에 필수적이다. 4단계는 치환된 의미단위를 통합된 구조의 대개념으로 묶어 기술하는 일이다. 도출한 의미단위들을 상위와 하위 구조용어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관관계

와 의미관계의 공통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현상 본질’을 찾아내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대상의 본질을 찾으려면 미시적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론적 선입견이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연구자세를 지녀야 하므로 본 연구자는 의미 경험과 관련된 문장과 단어는 밑줄을 긋고 반복되는 진술들은 의미망을 도출하여 다채로운 텍스트 맥락에서 숨겨져 있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탐구하였다.

<표 2> Giorgi 현상학적 연구에서의 분석 절차

구분	분석 절차
1 단계	전체 연구참여자들의 기술문장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느낌 파악
2 단계	연구참여자의 사고 단위로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본래의 의미 단위 구분
3 단계	의미 단위에 부합하는 학문적 용어로의 전환
4 단계	전환된 의미단위의 구조적인 통합

*출처: 정금희(2018,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p.64)를 연구자가 재구성

5. 연구 윤리

본 연구자는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목적과 면담의 수행과정 및 절차, 연구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현상학 연구는 녹취, 전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연구의 중립성과 적용성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에게 본 연구의 사전 주의와 연구숙지를 시켰다. 진로설계사들의 업무특성 상 생애진로설계의 전환학습경험이라는 연구주제는 엄밀하고 세심한 주제이므로 면담내용 녹취 동의, 질문대답 거부 의사 자유, 논문 수록 활용에 대한 연구 사전 동의를 사전에 알리고자 하였다. 면담내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비밀이 보장됨을 구두와 서면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왜냐하면 현상학 연구 목적을 성취하는 중요 지점은 ‘연구자의 선입견과 사전지식’에서 벗어나 연구의 객관성을 획득하고 연구 현상의 본질적 경험 정보를 기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의 일관성과 타당도를 높이는데 최적인 Denzin(1998)의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여 면담, 관찰, 복수 연구자 등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기록된 녹취자료를 연구참여자에게 재확인하여 문자정보와 구술정보의 오류와 텍스트 해석의 신뢰성을 검토받았다. 이와 함께 연구참여

자의 면담과정에서 표출되는 비언어적 행동, 표현, 상황을 관찰노트에 기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현상 분석에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면담관찰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있는지도 염두에 두었다. 연구수행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상학을 다수 연구한 현직 교육학 교수에게 현상학 연구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고, 도출된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들을 질적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육학 박사 2인에게 현상학 연구설계 검증을 거쳐 현상학 연구의 신뢰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참여자인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참여한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어떠한 전환학습경험이 이루어지는지 보는데 있다. 5명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5명의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을 심층 면담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전사하고,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면담의 결과를 도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한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상황적 기술구조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한 결과,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총 10명의 면담에서 추출한 의미진술은 총 106개로 나타났다. 이 중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면담의 의미진술은 총 58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면담의 의미진술은 48개를 추출하였고 이 의미진술 자료들을 범주 분석하여 총 106개의 의미진술들에서 추출된 총 1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13개의 주제에서 6개의 주제군과 5개의 범주를 최종 산출하였다. 채집된 의미진술을 각 연구참여자인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에게 진술자료를 보여주고 자신이 구술한 내용이 맞는지, 자신의 생각이 구술과 기록, 문자로 드러났는지를 상호 재검토하여 의미진술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다시 검증하였다. 해당 주제, 주제군, 범주 중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범주로 재구분한 결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범주는 총 9개의 주제, 4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범주는 총 4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 주제, 주제군, 범주자료 중에 연구 문제 1과 관련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과 관련된 범주는 총 9개의 주제, 4개의 주제군, 3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 범주자료 중에 연구 문제 2와 관련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학습경험과 관련된 범주는 총 4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다수 자료인 의미진술자료들은 주제와 주제군 분류로 포함시켜서 <표 3>에 기술하였다.

현상학 연구방법을 위와 같이 적용 분석한 결과, 연구목적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과 의미있는 연관성이 있는 연구결과자료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구분하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5개의 주제, 2개의 주제군, 2개의 범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진로설계사들이 어떠한 학습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학습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전환적 경험을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에 연구목적이 설정되었다. 진로설계사 10인의 면담전사자료의 의미진술 106개에서 최종 도출된 연구결과 자료는 13개의 주제, 6개의 주제군, 5개의 범주, 2개의 구분으로 최종 산출되었다. 이러한 진로설계사의 연구참여정보를 의미 분석한 결과,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전환학습경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서로 유사함과 다름을 경험하고 있다는 현상의 의미 차이가 밝혀졌다.

<표 3> 연구결과 도출된 의미진술의 주제, 주제군, 범주, 공통

주제	주제군	범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로설계를 시작했어요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	직업 정체성 형성	기독교인	다 름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전하는 사명자로서 성경적 진로설계를 해요				
생애진로설계 자체가 피설계자를 향한 하나님의 지으심을 찾아주는 일이에요				
주제	주제군	범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
생애진로설계와 함께 신앙을 전할 때 이후 문제도 해결되리라 희망을 봐요	기독교 신앙과 진로설계 병행으로 다수 문제 해결	복합적 생애 진로문제 해결	기독교인	다 름
방황하며 아파하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피설계자가 만족하도록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생애 진로설계 전문성	기독교인	비 슷 함
피설계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니 전문성을 더 기르려 노력하게 돼요				

아픔과 방향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해요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비 슷 함
열정을 다해 피설계자를 이끌어주려고 해요				
피설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피설계자를 진심으로 돕는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헌신	생애 진로설계 진정성	비기독교인	
나를 찾아온 피설계자들의 어려움을 전문가로서 해결할 때 기뻐요				
피설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걸 볼 때 나도 더 성장해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내 삶의 의미	진로 전문성의 생애 정체성		
전문성을 계속 길러 더 나아지고 싶어요				
13주제	6개 주제군	5개 범주	2개 연구대상	2개 구분

1.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비슷한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학습의 범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생애진로설계 진정성, 진로전문성의 생애정체성이다. 먼저 첫 번째 전환학습경험의 범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군은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피설계자를 진심으로 돕는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헌신’,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내 삶의 의미’로 제시되었다.

사실 처음 진로설계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땐, 호기심도 생기고 잠깐 쉬다가 인제 일도 다시 할 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로전문가 목사님들이 전공도 하시고 교육학자시고 창조원리 찾느라 10만명 임상도 하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안가르쳐주는 전문노하우 가르쳐주시고, 운영도 하시니까 뭔가 인심이 되기도 하구, 크리스찬으로 돈보다도 힘든 사람들 살리는 일, 그러면서 뭐랄까 전문적인 일...; 진로설계사 처음 따고 할 때 속으로 나같은 생짜 초보가 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결과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떨어가며 성향을 설명해주는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뭐 한가지만 물어봐도 돼요?”해서 대답해주었는데, 나중엔 어둡던 얼굴이 환해지던 반수 그만두고 유학간 여대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제 초보 생애진로설계로 구한 첫 작품인 셈이죠. 제게 오는

사람들의 인생에 책임감을 느껴요. 더 노력해야죠.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A 의미진술 일부 -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라는 주제군은 ‘피설계자가 만족하도록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역할만 하는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이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선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이라는 심층된 전환학습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직업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신앙을 가진 진로전문가에게 신뢰를 나타냄으로서 전문적 직업정체성 확보에 같은 신앙이라는 동기가 작용하는 배경요인이 되었다. ‘피설계자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니 전문성을 더 기르려 노력하게 돼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군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한 전환학습경험으로 생애진로설계의 개인적 만족을 넘어 자신을 진로전문가로 인식전환하여 진로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맥락의 전문성 발달에 나서게 된 전환된 인식을 경험하였다.

직장을 열 번 넘게 옮기다 집도 없고 결혼도 못해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더라고요. 정수리가 흰하구, 노총각인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내미가 매일 숙제도 안하고 스마트폰 게임이나 하면서 빈둥거리는걸 참고 싸우고 참고 하다 갑상선이 걸린 어머님도 오시구, 정말 진로설계사는 직업만 찾아주는줄 잘못 알았는데, 온갖 문제 다 해결해주는 종합병원 같은 곳이에요.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곳인데 제일 나중에 와요. 안타깝죠. 어떨 땐 속상해서 상담하다가 피설계자들처럼 같이 옮기도 해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선 절박하게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정해진 상담시간을 오바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가끔 점심도 저녁으로 건너뛰는 경우도 있고, 잘 났으면 좋겠어요. 절 믿고 온 분들인데……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C 의미진술 일부 -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진로설계 제공이라는 주제군은 ‘아픔과 방황을 함께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해요’, 라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피설계자의 상황과 환경의 입장에서 공감을 더하고 감정의 동조를 넘어 생애진로설계과정에서 감정몰입의 경험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리적 고통을 당한 피진로설계자를 향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자 진로설계전문가의 안타까움이 혼재된 경험을 보였다. 체험적으로 깊은 공감의 상태는 기독교인으로서 진로설계가 영혼을 살리는 일로 전이되는 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내었다. ‘열정을 다해 피설계자를 이끌어주려고 해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서 피설계자

의 공감과 경청, 이해의 차원에서 진로전문가로서 문제해결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열망의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상담실에 들어올 때는 안좋은 표정을 왔다가 끝날 때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걸 볼 때는 참 기뻐요. 나이도 먹고 과외만 하다가 뭐 자격증 하나 없어 반신반의 하며 왔는데. 진짜 되게 기쁘더라구요. 피설계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전문가선생님이다! 처음 만났지만 뭔가 날 도와줄 사람이다’, 이런 시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고 문 열고 나갈 때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저도 진로를 몰라 방향 엄청 많이 했거든요. 가끔 잘 맞는 일 찾아줘서 취직했다고, 고맙다고 쿨 한상자 보내온 백수였던 분도 있고……

- 비기독교인 연구참여자 F 의미진술 일부 -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생애진로설계 제공 주제군은 ‘피설계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마찬가지로 진로설계에서 기쁨과 전문적 직업인의 사명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려 하였다. 새로운 삶을 도와주고 찾아주고 싶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의 정도는 질지 못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기본 자격직무기능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경험으로 확장하려는 지속적 전문적 정체성 확보의 동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를 찾아온 피설계자들의 어려움을 진로전문가로서 해결할 때 기뻐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한 전환학습경험으로 생애진로설계의 만족을 넘어 자신의 실질적인 진로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업정체성 발달 행동에 나서게 된 적극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울하거나 무덤덤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진로를 못찾아 왔거나 목표를 못찾아 왔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과 약을 먹다가, 심리상담 갔다가 얘기만 들어준다구, 해결이 안되서 오는 경우도 많구요. 잘못 진단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은 긍정면 부정면 둘 다 있는게 정상인데, 온전한 사람을 못보고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 들춰서 정신과 약을 잘못 먹거나 참 안타깝죠. 진짜 이 사람의 성향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원리로 만든 옥타그노시스 검사와 생애진로설계로 찾아주면 신기하게도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럴 땐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우리 가족들도 ‘있는 그대로’의 성향을 찾고 전보다 사이가 좋아졌어요. 나와 우리 가족, 친구들, ‘있는 그대로’의 진짜 ‘존재’를 모르는데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 비기독교인 연구참여자 B 의미진술 일부 -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삶의 의미인 주제군은 ‘피설계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걸 볼 때, 나도 더 성장해요’, 주제에서 도출되었는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성향과 직업을 찾아주는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제공이 곧 가족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라는 경험을 넘어 자신의 생활의 미로 연결되며 삶의 의미로까지 전환되고 확대되는 경험을 보였다. 심리적 고통이나 부정적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나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적 관점에서 피진로설계자를 바라보지는 못했다. ‘전문성을 계속 길러 더 나아지고 싶어요’라는 두 번째 도출 주제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 참여를 통해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기면서 자신의 생애정체성을 진로전문성 위에 일치시킨다는 정체성의 인식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전문성의 범주에서 생애진로설계 전문성 확장으로의 전환, 피설계자를 향한 진정한 진로설계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환학습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진로전문성이 생애정체성이라는 범주에서 진로설계 전문성 향상이 곧 삶의 의미라는 범주와 유사한 전환을 학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신앙적 관점과 일반 전문가적 관점을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교하여 신앙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하지 않으면 진로설계에서 신앙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성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이런 신앙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상의 정체성 사이의 고민 보다는 진로설계 전문성과 역량, 보람을 나타내는 경험을 보였다. 따라서 기독교적 배경과 크게 관련이 없이 진로설계사 자격의 전문성과 진로설계의 보람, 흥미, 노력은 유사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환적 학습의 경험도 유사하였음을 동시에 알 수 있었다.

2.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에게 나타난 상이한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성향에 맞는 적합한 직업과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 직업정체성을 경험하며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전문가로서 전문적 학습 및 전문인의 정체성과 영적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나타난 전환학습경험의 의미 범주들은 직업정체성 형성, 복합적 개인문제해결이다. 먼저 첫 번째 학습경험의 범주인 ‘직업정체성 형성’을 살펴볼 때, 이 범주에 들어가는 주제군은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 ‘기독교 신앙과 진로설계 병행으로 다수 문제 해

결'로 나타났다.

전 진로설계사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창조원리 성경적 진로설계사로 돕게 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을 그냥 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한마리 어린양'으로 대해요. 하지만 자격증들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이 성경적 진로설계사를 선택한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원리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한 뒤 만들어진 상담도구와 이론들이라는 이유예요. 십자가와 함께 창세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아는게 제일 임무고 이걸로 교회에서 사역자도 뽑고, 이혼도 막고, 교회학교에서도 쓰구 불신자 전도도 하구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에게 옥타그노시스 검사는 딱 '21세기형 전도지'이고 성경적 진로설계사는 '21세기형 전도자'인 셈이죠.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I 의미진술 일부 -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피진로설계자를 보는 관점과 경험이 달랐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도와줄 '피진로설계자'라는 입장이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성경적 진로설계 관점의 교육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영혼의 하나님, 진로설계 검사도구와 상담의 이론을 대하는 것도 한영혼을 만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치유시켜 주려는 진로설계전문가로서 기독교 정체성을 드러내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일반 진로설계사에서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의 직업정체성을 전환한 뒤, 이를 접목한 영적 진로설계의 원리를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만으로 진로설계를 하지않고 성령님의 주도로 피진로설계자를 공감하고 영적으로도 피설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일반상담이라는게 제가 믿는 기독교와는 뭐랄까 약간 다르다고나 할까요. 일반학문에서 배우면 하나님이 만드신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일반 상담도 좋지만 뭔가 불편하고 2프로 채워지지 않아요. 기독교에서 하는 상담도 기독교 상담학도 배웠는데 사실 일반 상담에서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았어요. 전 그 답을 진로설계사와 옥타그노시스 검사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유전체 임상 그대로 지으신 모습, 달란트, 성향을 찾아주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바로 회복이, 저절로 되거든요. 전 이 과정과 이 이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저를 알게 되었어요. 힘들 때는 그만둘까 고민도 했지만 일반학문의 심리학, 상담학, 정신과에서 해결 못하는 진로문제, 심리문제, 관계문제, 정신적 문제들이 풀리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교회 떠난 가나안 사람들 돌려보내거나 무종교인들 전도도 백명 넘게 했어요. 요즘 교회 애

기하기 힘들다지만 피설계자들이 찾아오니깐요. 저도 그래서 진로설계사 한거구요.

이렇게 빛나는 별로 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구 하면 별 거부반응이 없어요. 예전엔 학문, 신앙, 상담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이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모든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원리이자 성경적 진로설계로 합쳐지고 쓰이니깐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제가 하는 일로 회복되는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는걸 매번 느낍니다. 하나님께 전 받기만 했는데 오시는 피설계자분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로 주게 돼요. 생애진로설계가 힘들지 않냐고 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기뻐요. 물론 가끔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매순간 함께 하시길 기도해요. 저는 오시는 분들을 사랑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사람을 지으신 뜻을 알면 가능해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H 의미진술 일부 -

이처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를 정확한 진로정보를 제공한 직업전문인으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인식함과 비교하여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정한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날 때 신앙의 힘으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전문인이라는 직업정체성 측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진로설계사를 하게 된 동기가 신앙적 동기라는 점에서는 상이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충에서도 진로설계 청지기로서의 소명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생애진로설계를 응대하는 관점도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이론, 상담방법, 신앙, 진로적성검사 도구, 상담자 자신, 피설계자를 바라보는 지식과 시선이 자신의 전문적 시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그 자체 측면에 입각하여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가졌다는 영적 시각 또한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과 상담학 이론, 진로교육학 이론 등이 가치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융합하고 일체가 되어 성경적 진로설계를 심층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 경험과 유사한 점은 개인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보인 점과 직업전문인의 정체성 인식, 전문성 확보에 대한 열정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였다. 다른 점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과 달리 ‘피진로설계자들을 보는 영적인 관점’, ‘진로설계사를 시작한 동기’, ‘직업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과 경험’, ‘생애진로설계에 기독교적 전도방식의 도입’이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직업정체성 형성이 선행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 이전에 ‘기독교 신앙인’의 경험과 정체성이 선행된 후, 진로설계사 자격과정의 생애진로설계라는 전환학습경험에서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형성’으로 전환 및 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지각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진로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체성’과는 유사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지각하는 ‘생애진로설계’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 신앙에 기반한 진로전문가로서의 기능성과 함께 영적인 문제해결도 포함하고 있다는 직업발달적 인식이 함께 나타났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진로전문가로서 개인의 직업정체성 전환에 충실한 반면에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와 기독교인, 자아와의 영적 정체성 통합을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생애진로설계를 하다보면 모두 문제들을 한아름 안고 옵니다. 진로설계사 초기에는 문제만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전 문제 이면의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강점들과 성향, 사명과 일을 발견 해주면 되는데요. 직업이나 학과 같은 현실적 문제뿐 아니라 우울감, 자존감 낮은 거, 주변 사람들과 사이 안좋은 것도, 가족들과도, 즉시 풀려지기 시작하는 걸 자주 봐요. 얼마 전에는 집에서 하 키코모리로 2년간 제대로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던 남자 중학생 아들을 집사님들이 데리고 왔어요. 씻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눌러붙어 눈도 안보이는데 영적으로 악한 귀신들이 그 아이를 꽉 붙잡고 있는게 보였어요. 심호흡으로 기도하고 응답하여 달란트 찾아줬더니 씻기고 달래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보냈어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E 의미진술 일부 -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에서는 부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은 영적인 정체성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도구’, ‘진정한 어둠을 물리치는 자’, ‘진로설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서 진로설계사의 기독교 정체성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진로설계의 주체는 진로교육적 진로설계 전문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로설계 전문가로서 정체성인 영적 정체성이 생애진로설계 현장에서 동시에 작동하였다.

생애진로설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내게 주신 사역이고 이 곳이 사역처이자 선교지이지요. 교회 다니다 떠난 분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자기 모습을 되찾아주면 다시 가까운 교회에 출석해요. 마음과 영혼이 평안해져서 피부병까지 좋아진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없이 구원하신 것처럼 저도 돈벌이 같은 마인드는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품어야 하지만 이 성경적 진로설계사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전 그래서 일반대학원에서 진로쪽 박사논문도 쓰고 있고 나중에 신학을 배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해줄 거예요.

- 기독교인 연구참여자 I 의미진술 일부 -

비기독교인 및 기독교인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전환학습경험을 탐구한 결과,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은 자신의 경험과 가치, 지식 체계를 수직적으로 기반하여 전문적 진로설계에 대한 수평적 의미와 목표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피설계자에게 전환적 접근과 일체감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도 유사한 경험을 보였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애진로설계의 중심으로 보면서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였고, 생애진로설계에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진로설계자와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다르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기반하여 생애진로설계를 실시하며, 자신의 영적 경험과 신앙 가치가 피설계자의 생애진로설계 방향성과 목표설정 및 진로의 미 부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관점의 전환도 모두 나타내었다.

이처럼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시 복합적 생애진로문제해결을 범주로 하며, '기독교인 사명자로서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제공'을 담당해야 한다는 영적 관점과 전문적 정체성의 통합적 전환이 이야기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직업전문성과 생애진로설계의 직업전문인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하나님의 창조신앙 원리를 전한다는 신앙적 직업정체성으로의 전환하였다. 이 사실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신앙인 관점으로 진로설계사 전문적 정체성과 생애진로설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론, 상담방법, 진로설계방법, 진로적성검사 도구, 피설계자 인식, 신앙경력 등이 역동적이고 통찰적으로 전환 후 작동되면서 피진로설계자들의 심리, 진로, 관계, 영적인 통합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공통적으로 생애진로설계에서 전문적 가치를 추구하고 피진로설계자의 심리, 진로, 관계 등의 종합문제해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생애진로설계를 제공하며 동시에 직업진로, 직장이직 등의 표면적 문제와 함께 강박증 같은 신경증 증상, 우울증 같은 심리 증상 문제 해결, 성향으로 인한 관계문제 해결, 하나님의 창조원리 습득으로 인한 지식문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진로설계 방법, 진로적성검사 도구, 상담자 자신, 피설계자를 바라보는 지식과 시선이 모두 하나

님이 지으신 본질적 존재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임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자신도 직업과 신앙의 합일적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였지만 진로설계사라는 직업정체성을 넘어 영적 정체성 전환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전환학습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과 유사하지만 신앙적 정체성과 연계되어 영적 정체성과의 통합,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정체성 연계, 피진로설계자의 영적 정체성 전환경험의 투사라는 학습경험 측면에서는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V 연구결론

1. 결론 및 논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어떤 직업정체성로서의 전환경험을 하느냐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다른 직업정체성 전환을 나타낸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 사실은 (김미령, 2020 ; 박진희, 2013 ; 채현순·장유진, 2016)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하였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들의 총 58개의 의미진술로 산출된 4개의 주제군과 3개의 범주로 생애진로설계 학습경험의 본질적 현상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이전에 형성된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신앙정체성 형성의 경험과 생애진로설계의 상담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진로설계 전문성 사이에 주권적 견인을 나타내었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진로설계사 직무와 피설계자, 상담의 도구, 학문 등을 전문적 정체성에 입각해 본다면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개인의 삶과 진로설계의 전영역의 생애진로설계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피진로설계자의 삶과 신앙에 전환적으로 적극 작용하고자 하는 성경적 진로설계사로서의 직업세계관으로 전환하였다. 이처럼 진로설계사가 피설계자를 대상으로 종교의 유무와 신념에 따라 정체성 전환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한, (김윤숙, 2011 ; 박진희, 2013 ; 이미정, 2014)의 선행연구는 일치하였다. 이렇게 볼 때, 생애진로설계는 직업정체성의 준거틀인 ‘가치관적 요인과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여 연계하는가’라는 정체성 형성의 맥락에 달려있다는 (김진·이희수, 2022)의 선행연구의 결과도 이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 참여 과정에서 진로설계 전문적 정체성의 역할과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충실성과 신뢰성을 포함하여 현대인의 교육문제, 관계문제, 진로문제, 취업문제 등의 사회교육적 문제, 경제적 문제, 심리문제까지 포괄된 복합적이며 전환적

문제의 해결에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검사도구의 통합적 해결 및 영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됨을 증거하였다. 따라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간의 생애진로설계의 관계를 형성에 있어 전환학습경험의 차이를 심도있게 탐구할 필요성을 주창한 김윤숙(2011)과 이미정(2014)의 연구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학문과 일반자격과정, 상담과정, 교육학, 심리학 등 분야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진로적성 검사도구를 배제한 채, 기독교적 창조원리 기반 유전임상과 기독교 철학과 가치관, 성경을 도외시하여 얻는 유익과 인간 문제해결력보다는 성경적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적 가치관이 투입되어 연구된 이론과 도구, 즉 생애진로설계, 성경적 진로설계의 직업정체성, 창조원리 진로적성 검사도구의 문제해결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학문 및 이론과 현실에 적용할 때,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의 일반학문은 기독교 신앙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과 자연세계, 학문을 창조했다는 기독교 창조원리를 비과학적이며 증명 불가한 것으로 제외하는 관습이 있다.

이 관행은 인간이 유전적성으로 설계된 인간 그대로를 전제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반학문 연구자 개인의 사고와 연구는 연구를 개인의 사유적 추리에 한정시키고, 이를 전체 인간의 교육 문제에 똑같이 인위적으로 적용하여 개인의 교육 및 심리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이 사실은 일반 학문이 개인 간 교육, 심리, 인간 문제 해결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교육 및 심리 문제를 방치하는데 주요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인간 임상 유전적성 연구에 기반한 인간 창조원리 생애진로설계와 기독교 기반 성경적 진로설계, 창조원리 진로적성검사도구는 교육이론연구, 학문연구, 교육도구 개발, 개인심리문제, 진로문제 등, 총체적 인간문제해결의 근간으로써 그동안 미해결 상태로 누적되어 온 개인, 사회, 교육, 심리, 관계, 목회상담, 복음의 도구, 영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개별적 동인의 전환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자기 존재라는 생애 정체성과 진로설계 전문가로서의 기능적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학습을 경험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설계사로서의 정체성 발달은 그리스도인의 통합된 직업정체성과 함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다르게 구분되었다.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 안에서 진로설계사 자신, 피진로설계자, 하나님과의 삼중관계를 재인식하여 통합적으로 생애진로설계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진로전문가로서의 생애와 하나님과의 신앙관계, 자신의 생애진로설계 경험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통합적 정체성 경험으로 전환하였다.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매회 개발되는 급변화된 시대상황에서 교회와 세상과 교육선교의 현장은 다변화, 다차원의 영적 교육전쟁의 세계로 급격히 진입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복음 전달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교육과학적 진로적성검사 도구와 상담, 교육, 생애진로설계의 전문성을 적극 도입하고 새로운 해결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기존 교육학, 심리학 등의 학문과 지식에 더하여 ‘영성’과 ‘유전적 인간임상’을 기반으로 한 ‘인간창조원리’라는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되는 ‘생애진로설계’가 교육적 지성과 학문연구, 기독교교육 부문에 지속적으로 합류된다면 현재의 교육과 미래의 교육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대치하고 해결하는데 긴급하고 필요한 대책이 될 것임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의의 및 적용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생애진로설계 측면에서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적 경험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일부 연구한 국내 연구들이 있었지만 기독교적 측면에서 생애진로설계를 재해석하는 연구는 미비하였다.

둘째, 일반 교육학 입장의 진로설계사 직업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적 입장의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떤 관점에서 유사하고 다른지를 경험적 의미로 밝혀내었다.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 신앙적 입장의 진로설계 접근이 깊고 내밀한 인간의 문제에 더 통찰적이면서 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생애진로설계가 진로, 심리, 관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이며 기독교적 방안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였다. 이 사실은 기존에 진로설계가 단순한 직업학과를 찾아준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교육적 문제와 정신병리적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확장적 관점과 통합적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여 인간의 교육문제와 병리적 문제, 영적 문제해결의 연구적 단초를 밝혀내었다.

넷째,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진로설계사 전문가와 성경적 진로설계이론, 창조원리 인간임상으로 연구된 진로적성검사 도구가 인간을 둘러싼 교육과 상담, 심리, 신앙의 문제 해결의 위기를 극복하는 적극적 대안이자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섯째, 일반교육학과 상담학, 기독교 세계관의 신앙이 대립과 혼돈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창조원리에 입각한 생애진로설계로 접근하여 일반교육학으로 분류되는 진로교육과 상담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신앙이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을 이루는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비교 측면의 질적 연구를 객관화하기에는 연구참여자가 소수라는 연구의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역량을 찾아주는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하나님이 모태부터 창조하신 인간의 유전적성을 찾아주는 기

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생애진로설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일반 진로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문제와 심리 장애 현상을 해결하는 통합적 상담과 교육목회, 복음연구의 도구, 신학과 교육학문의 연계 연구, 기독교교육과 성경적 진로설계 부문의 기초 연구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이로써 개인생애문제 해결, 교육문제 해결, 심리문제, 영적 문제 해결의 통합학문연구와 선행연구로써 전환의 트리거(Trigger) 연구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는 생애진로설계에서 기독교인의 창조적 세계관과 직업정체성을 연구하는 실제적 사례 연구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계진·김진선·신주연 (2022). 특수대학원 상담전공생의 학업 과정에 나타난 전환학습 경험 내러티브 탐구. **한국교육문제연구**, 40(3), 145-174.
- 고은숙 (201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90년대생 대학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김미경 (2015). **수퍼비전이 기독교상담자 발달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김미령 (2022). 중년기 여성의 진로전환: '사람을 돕는 직업군(Helping professions)'의 진로생애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1(1), 87-126.
- 김신희·양은주 (2019).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진로 전환기 직장인의 생애 설계 상담(life design counseling)의 적용 연구. **인간발달연구**, 26(2), 77-106.
- 김윤숙 (2011). **성경적 자기 이해를 통한 청소년 진로상담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 김정연·이복희 (2022). 평생교육 교수자의 성인 발달장애인 교수경험 의미탐색.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연구**, 1(2), 91-114.
- 김지현·문한나·성문주·손수진·이정은·한유리 (2013). 고등교육맥락에서 본 학습자의 전환학습 경험에 대한 자기 성찰적 보고. **성인교육학회**, 16(2), 31-57.
- 김진·이희수 (2022). 청년 구직자의 직업상담에서 나타나는 전환학습 경험의 의미. **평생교육·HRD연구**, 18(1), 1-36.
- 김향식 (2010).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김희영 (2018). 기독교인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선교와 신학**, 44, 225-257.
- 노규성·이주연 (2016).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업설계 지원 플랫폼 모형에 관한 융합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7), 167-174.
- 박경호 (2003). 전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성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7, 292-315.
- 박에스더·김진 (2021). 50대 중년여성 3인의 생애전환 경험에 관한 의미 탐구: 진로설계사로 새 인생 출발하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857-875.
- 박예진 (2016). **기독교인 초보상담사의 신앙과 자기성찰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박진희 (2013). 나눔의 프락시스에 기초한 기독교 대학생 진로상담의 모델과 실천방향. **복음과 상담**, 20, 125-152.
- 엄미란·최은수 (2013). 산업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성인교육학회**, 16(4), 135-166.
- 오인탁 (2017). 4차 산업혁명과 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52, 417-445.

- 유혜령 (2015).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논리와 방법: Max van Manem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가족과 상담**, 5(1), 1-20.
- 유흥준·유태용·장태인·배성호·조아름 (2014). 직업정체성 척도개발과 직업정체성의 선행 및 결과변인들 간 관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7(4), 617-642.
- 이광석 (2021). 코로나19 국면 인공지능 자동화와 플랫폼 노동의 위상학.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67-98.
- 이남인 (2004). **현상학과 질적 연구**. 파주: 한길사.
- 이미정 (2014). **상담수련과정에서 기독교인 상담사의 자기 발달 경험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이유우 (2022). 생애경력설계의 통합적 측면에서 중년의 지속가능한 고용과 경력 관련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94-194.
- 이은미 (2019). 기독교 청년의 직업소명에 관한 고찰: 교회의 역할과 과제. **신앙과 학문**, 24(2), 127-157.
- 이진구·정일찬·오미래 (2018).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14(3), 1-30.
- 정금희 (2018).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2010).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3rd Ed.):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채현순·장유진 (2016).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직 정체성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3(4), 167-192.
- 최성미 (2019). **성경적 상담자의 정체성 경험과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 최혜윤·김은하·홍숙선 (2019). 상담전문가로 진로전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20(3), 141-164.
- Denzin, N. K.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UK: Sage.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A: University of Duquesne.
- Lloyd-Jones, D. M. (1965).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s and Its Cure*. MI: EERDMANS / KCBS.
- Kegan, R. (1998). *In over our heads: The mental demands of modern lif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erriam, S. B. (2000).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F: Jossey-Bas.
- Mezirow, J. (2000).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Mezirow, J. & Associates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SF: Jossey-Bass.

Mezirow, J. (1991).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F: Jossey-Bass.

한국직업능력연구원.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searchQulCpCd=0001>.(검색일 2024. 12. 04.)

한국진로적성센터. <https://aptitude-x.com/certificate.php>.(검색일 2023. 12. 21.)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의 전환학습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Exploring the Significance of Transitional Learning Experiences in Career Planning among Non-Christian and Christian Participants in Life Career Design

김진 (백석예술대학교)

박에스더 (한국진로적성센터/교신저자)

논문초록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도래한 디지털화와 AI의 등장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증가하는 현대인에게 생애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 측면에서 혼란과 딜레마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진로설계사의 직업정체성은 생애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전환적 경험을 하며, 어떠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본질적으로 경험하는지에 대한 현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생애진로설계에 참여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를 중심으로 생애진로설계 경험에서 나타나는 의미를 탐색하여 정체성 형성의 구조와 의미가 어떠한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기독교인 진로설계사가 생애진로설계를 통해 나타나는 전환학습경험의 의미는 어떠한지를 밝히고자 한다.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5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반구조화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생애진로설계 현상의 본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방법은 면담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로 나타난 연구대상의 유사점은 생애진로설계의 개인 정체성에서 전문적 정체성으로의 전환, 직업사명의 정체성 보유, 진로설계 전문성 확장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였으나 기독교인 진로설계사는 생애진로설계시 복합적 생애진로문제해결을 범주로 하며, '진로설계사 소명동기와 역할제공'이라는 전문적 정체성에서 영적 정체성으로의 전환, 하나님과의 수직적이면서 수평적인 통합적 전환의 경험은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애진로설계가 진로, 심리,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의 동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일반교육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신앙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원리에 입각한 생애진로설계와 성경적 진로설계이론, 창조원리 진로적성검사도구와 함께 통합적으로 실시될 때, 수직적 및 수평적 통합의 교육과 심리, 영적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첫 임상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생애진로설계, 전환학습경험, 비기독교인 진로설계사, 기독교인 진로설계사, Giorgi 현상학적 연구